

## INVITATION

오랜 기다림 끝에 그녀를 만났습니다.  
그리고 오랜 여정 끝에 그를 만났습니다.  
저희 두 사람, 소중한 인연 감사히 여기며  
이제 두 손을 잡고 한 곳을 바라보며  
참되고 따뜻한 사랑으로 키우고자 합니다.  
부디 오셔서 저희의 앞날을  
축복하고 격려해 주시면 더없는 기쁨이겠습니다.

한성덕 · 곽연자 의 장남 세정  
(루도비코)

조대식 · 김정화 의 삼녀 경진  
(필립보) (비비안나) (아네스)

2016년 6월 25일 (토요일) 오후 4시  
옥수동성당 본당

